

'4대 종교' 벽 허문 동행

9박10일 화합의 도보 전주 '세계 순례대회' 개막 나바위~송광사 9개 코스...11일에는 순례포럼도

전주교·원불교·기독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들이 함께 전북 도내 600리 구도(求道)의 도보 길을 걸으며 상생과 화합을 모색한다.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2000여명은 지난 1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세계 순례대회' 개막식을 갖고 도

보 순례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9박10일간 1만명의 탐방객이 도내 곳곳의 성지를 9개 코스로 나눠 걷고 10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11일에는 세계순례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미국 주립대 세계종교학

교수인 머빌 위라세케라(기독교), 티베트 종교문화부 베마친조르 장관(불교), 세계평화회의 공동 대표인 이오은 교무(원불교), 로마 교황청 순례 특사인 조셉 칼라피 파람빌 대주교(천주교) 등이 순례와 종교 화합의 상관계를 조명한다.

이들이 걷는 순례길은 1845년 한국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 명의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호남



'세계 순례대회'에 참가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지난 1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순례길 원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 등으로 연결된다. 각 종단과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단신

도, 소 30만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

전북도는 올 겨울 구제역 발병에 대비,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만6000 농가의 소 30만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사육 농가와 노령인 농가에 대해서는 공·개업 수의사의 투입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

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5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전북도에서는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북은 '구제역 청정지역'이란 명성을 얻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도서관 내달 4일까지 '인문학 특강'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철학·역사·예술 등의 주제 분야 베스트셀러 도서 저자와 명강사를 모시고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15일 동양고전을 통한 삶의 지혜를 배우다(한

재훈 성공회대 교수) ▲22일 우리 시대의 최소한의 인문지식(주현성 작가) ▲29일 명화 속 이야기(박희숙 미술평론가·화가) ▲12월 4일 위대한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황광우 인문학자)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063-450-4456) /군산=박익성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군산으로 시간여행

근대역사체험공간 개소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근대 건축물 원형을 살린 군산 근대역사 체험공간 1권역이 완공됐다.

군산시는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68억 원을 투입해 ▲근대역사 체험공간 5920㎡(1권역 2928㎡·2권역 2992㎡) ▲탐방로 750m(근대역사체험공간~근대 역사박물관) 등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근대역사 체험공간 2권역에 근대역사교육관 3동, 근린생활시설 8동, 건축재생관 1동, 안내센터 1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근대역사 체험공간 1권역(월명성당 권역·2928㎡)이 마무리됨에 따라 5일 월명동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근대역사 체험공간은 근대건축물 40여 채를 매입해 1930년대 건축당시 원형을 살린 근대 건축 집중화 권역으로 ▲시대형 숙박 체험관 5개동(21실) ▲근린생활시설 4개동이 시설됐으며, 내부에는 중정형 광원이 조성돼 있다.

시대형 숙박체험관 5동은 게스트 하우스 7실·2인용 10실·가족형 4동을 갖추고 있으며, 근대생활 시설 4동은 각각 민속주류, 전통발효 체험, 특산물, 전통차를 판매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소식을 갖는 근대역사체험공간은 근대 건축물을 새롭게 재조명한 국내의 선진 사례로 꼽힌다"며 "주변에 일본식 근대 건축물과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있어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군산=박익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가을 출렁~

지난 3일 단풍이 절정을 이룬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높이 583.7m)을 찾은 행락객들이 '출렁다리'(현수교)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난 1981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은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부안 하수도요금 전국 2배

20㎡당 7850원

정부가 자치단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의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 물가조사(2011년 8월~2012년 8월)결과에 따르면 부안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20㎡당 78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요금(3867원)의 2

배, 전국 최저인 경남 산청군(980원)보다 8배나 높은 것이다.

상업을 하는 장모(53)씨는 "군이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의 70% 수준까지 올려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안군 행정을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분투, 정화조 정소료 등을 10년 이상 동결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현실에 맞춰 인상했다"며 "그마저도 원가의 50% 정도"라고 밝혔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에 국내 최대 수목원

200ha 규모 100억 투입

새만금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국립 수목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산림청은 지난 2일 서울 강남호텔에서 국내외의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립 새만금 수목원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해양형 국립수목원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새만금 간척지 안에 200ha 규모의 수목원을 만들어 국내 섬이나 해안지역뿐 아니라 각국의 해양 식물을 수집·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해양식물 연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과 전북도는 2013~2020년 새만금 농업용지 200ha에 총 1000억원을 들여 다기능 인공 숲을 조성, 이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수목원에는 세계 해양식물원, 자생 식물원, 숲 속 전망대, 시험재배 온실, 염생 수생식물원 등이 들어선다. 국가 수목원은 현재 경기도의 국립수목원(옛 광릉수목원)이 유일하다. /군산=박익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정읍시금고, 농협·전북은행 지정

정읍시는 2013년부터 2년간 정읍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는 농협은행, 특별회계·기금은 전북은행을 지정하고 최근 약정을 체결했다. 시는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융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심의해 이같이 지정했다. 시는 농협은행(주)과 (주)전북은행으로부터 금고제안 신청서를 접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남원 덕과 사곡마을 '전통숲 복원' 선정

최근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사곡 마을숲이 2013년도 '전통마을 숲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이 확보됐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은 소멸돼 가고 있는 전통 마을숲의 보전을 통한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전통 문화 계승 및 체험공간

으로 활성화해 산림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내년 1억원을 투자해 콘크리트 도로를 철거하고, 병든 나무에 대한 외과 수술과 지지대를 설치해 생육환경 개선과 소나무 후계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박성기기자 bs8787@

부안농기센터, 참방 가공 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이틀간 참방연구소에서 참방선도 재배농가 20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작목인 참방 가공과 병양차 상품 균일화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 기전대학 이동욱 교수와 센터 박연실 지도사

가 강사로 나서 병양 채취와 뒤음, 포장 등 전 과정을 직접 수제 병양차 제조를 실습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제 차 제조 교육 등으로 농가 소득 창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목포 274-5987
남구 676-7719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
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2층